보도시점 2023. 7. 21.(금) 10:00 배포 2023. 7. 21.(금)

본격적인 폭염 대비 취약시설 냉방 현장 점검

- 이창양 장관, 서울 관악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찾아 냉방 현장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집중호우가 그치고 불볕더위(폭염)가 시작됨에 따라 7. 21.(금) 서울 관악구에 있는 양지지역아동센터를 찾아 냉방 이용 현황을 점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6월 이 지역아동센터의 5등급 벽걸이 에어컨을 1등급으로 바꾸고, 노후화된 외벽 창호를 2중 창호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한 바 있다.

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지역의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층 어린이 35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 에어컨 및 창호 교체 등으로 냉방비와 난방비가 각각 약 34%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양 장관은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전기사용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면 근본적으로 에너지사용량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며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하여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07년부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 910억 원보다 86억 원을 증액한 996억 원으로 취약가구에 약 1만5천 대의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였고, 190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창호, 단열, 고효율 냉방기기 등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로당,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30%의 전기요금 할인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있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지원팀	책임자	팀 장	박은표 (044-203-5160)
		담당자	사무관	김광수 (044-203-5161)